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을 통한 한국 구술사 연구의 동향과 주제 구조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Thematic Structures in Korean Oral History Using Text Mining

이정연(Jungyeoun Lee)

E-mail: jyonlee@sch.ac.kr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논문접수 2026-01-18
최초심사 2026-01-26
게재확정 2026-02-04

ORCID

Jungyeoun Lee
<https://orcid.org/0000-0003-2543-959X>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B5A16004861).

<https://jksarm.koar.kr>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구술사 연구가 국내 학술환경 속에서 형성해 온 연구 동향과 주제 구조를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학술지 가운데 2002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구술사 관련 논문 922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학술지 및 학문 분야 분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함께, 저자 키워드의 시기별 변화 분석, 저자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논문 제목과 초록을 활용한 TF-IDF 분석을 결합하여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구술사 연구는 역사학을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학문 분야와 학술지로 확산되어 왔으며, 연구 주제는 시기별로 방법론 정립 단계에서 기억과 해석의 확장, 나아가 기록과 공공성 중심의 실천 단계로 이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술사 연구의 주제 구조는 한국 근·현대사 증언의 역사화, 구술생애사, 트라우마의 재구성, 구술전승과 공동체 기억, 구비문학과 구술성, 공공역사,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7개 주제 군집으로 구조화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중심의 해석적 내용 분석을 넘어, 대규모 학술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한국 구술사 연구의 축적과 분화 양상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and thematic structure of oral history studies in Korea using a text mining-based approach. The dataset consists of 922 journal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2 and 2025 in journals under the Korean Citation Index (KCI). The study combines descriptive statistics on journal and disciplinary distributions with diachronic analysis of author-assigned keywords,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and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analysis of article titles and abstracts.

The results show that oral history research in Korea originated within the field of history and has progressively expanded across diverse academic disciplines. Research themes have evolved from methodological foundations to memory-centered interpretations and, more recently, to practice-oriented concerns, such as public engagement, records, and social utilization. The thematic structure is organized into seven major clusters: the historiciz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testimonies, oral life histories, the reconstruction of traumatic memory, oral tradition and community memory, orality and folklore, public history, and migration and diaspora.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overview of the accumulation and diversification of oral history research in Korea and demonstrates the usefulness of text mining and network-based approaches for trend analysis in the humanities.

Keywords: 구술사, 텍스트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동시출현, 디지털인문학, TF-IDF

Oral history, Text mining, Network analysis, Keyword co-occurrence, Digital humanities,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근현대사는 식민 통치와 해방, 한국전쟁과 분단을 거쳐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역사 기록은 전통적으로 지배층이 생산한 문헌 사료 중심에서, 당대의 사건을 경험한 개인들의 경험과 기억에 주목하는 구술사(oral history)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 특히 녹음 기술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구술사를 하나의 방법론적 연구 영역으로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대규모 전쟁과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 문서 중심 역사서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역사 기록 방식으로 기능해 왔다 (Moss, 1988).

구술사는 사람들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의미화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자 연구 분야로서, 과거의 사건 자체를 탐구하는 전통적 역사학과 달리 개인의 기억이 동시대적 서사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재현되는지에 초점을 둔다(Hoopes, 1979). 구술사 기록은 일반적으로 구전(oral tradition), 구술증언(oral testimony),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로 구분되며, 구술사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역시 역사학을 비롯하여 언어학, 사회학, 심리학, 민속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 걸쳐 학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별로 구술사의 전개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 노동계급의 역사와 사회운동을 배경으로 노동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연구 방법으로 구술사가 발전하였으며(Smith, 2013),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트라우마를 규명하기 위한 구술사 프로젝트를 계기로 학문적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구술사는 근·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증언 수집에서 출발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술사 사업 지원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구술채록이 축적되어 왔다(윤택림, 2023). 국내에서는 구술자를 중심으로 한 구술채록 결과물을 구술기록물로,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역사를 서술하는 연구를 구술사 연구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역사학뿐 아니라 구전 및 구술 아카이브와 관련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정연, 2009; 정혜경, 2015; 허영란, 2013). 이처럼 구술사에 대한 정의와 연구 범위는 국가별·사회문화적 맥락과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의 시대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구술사 연구가 국내 학술 환경에서 어떻게 축적되고 확장되어 왔는지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구술사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과 주제 영역의 구조를 파악하고, 대규모 학술 텍스트 분석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해석적 내용 분석에 머물렀던 기존 접근을 넘어 구술사 연구의 주제 구조와 변화 양상을 계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구술사 연구에서도 최근 계량서지학적 텍스트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점차 등장하고 있다. 교육학 분야의 구술사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Er Türküresin et al.(2024)은 Web of Science에 수록된 1975년부터 2022년까지 출판된 교육학 분야의 구술사 관련 학술논문 381편을 대상으로 인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구술사 관련 논문은 1980년에 처음 출현하였으며, 연구방법론의 명료화와 연구 범위의 확장을 배경으로 2010년을 전후하여 연구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키워드 602개를 대상으로 한 빈도 분석에서는 구술사, 역사, 기억, 교육, 성별, 커리큘럼 등의 핵심 개념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또한 저자 동시인용분석을 통해 11개의 저자 군집이 확인되었으며, 가장 높은 연결 강도를 보인 연구자는 톰슨(Thompson)이었고,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는 버널(Bernal)의 논문이었다. 국가별 인용 분석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가 높은 인용도를 보였으며, 인류학·교육

학·역사학 분야의 연구들이 구술사 연구의 핵심 참조 영역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dalas et al.(2024)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 구전 전통(oral tradition) 연구의 지식 지형을 계량적 지학적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0개국 312명의 저자가 작성한 102개 출처의 139편 문헌을 분석하였다. 인용 분석 결과, 2010년 이전에는 11편에 불과하던 관련 연구가 2016년 이후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제 학술지에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구전 전통 연구는 ‘역사’, ‘이야기하기’, ‘인간’, ‘여성’ 등 전 세계 구술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의 비중이 낮은 반면, 생태적 지혜와 환경을 중심으로 한 주제가 두드러지며, 동부 인도네시아, 신화, 구전 전통, 변형, 민속 등의 키워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국내 구술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정혜경(2015), 이재영과 정연경(2018)을 들 수 있다. 정혜경(2015)은 국내 구술사 연구가 1990년대 구술생애사 연구의 확산과 사회학자들의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 방법의 도입, 그리고 구술채록 작업의 축적이라는 자료적, 방법론적 기반을 통해 학계에 정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구술사가 특정 학문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연구방법론으로서 학제 간 연구로 확장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재영과 정연경(2018)은 1991년부터 2018년까지 RISS에서 ‘구술사’로 검색된 43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빈도 분석과 연구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논문은 총 195개 학술지에 분산되어 게재되었으며, 5편 이상을 수록한 학술지는 상위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형태는 단독연구가 약 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0년 『구술사연구』 창간 이후 연구 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문 분야별로는 인문학 분야가 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복합학 분야(20%)와 사회과학 및 예술·체육 분야(14%)가 뒤를 이었다. 연구 주제는 UCLA 구술사연구센터의 장서 주제 분류 19개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지역사회와 역사 관련 주제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여성과 가족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내 구술사 연구의 양적 동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연구 주제 분석에 미국의 장서 주제 분류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구술사 연구의 고유한 주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구술사 연구의 양적 성장과 주요 연구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연구자들이 실제 논문에서 사용한 개념과 용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 담론의 구조와 변화 양상을 충분히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술논문 텍스트에 구현된 용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국내 구술사 연구의 주제적 특성과 전개 양상을 보다 내재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한국 구술사 연구의 연구동향과 주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구술사 연구의 학문 분야별·학술지별 연구동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둘째, 한국 구술사 연구의 핵심 주제는 시기별로 어떻게 재편되고 확장되어 왔는가?

셋째, 한국 구술사 연구의 주제 군집은 어떠한 유형으로 구조화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2.1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 구술사 연구의 동향과 주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술사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는 학술지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술채록 결과물은 구술사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고,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통용되는 연구 생산물인 학술논문으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2002년부터¹⁾ 2025년 9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기준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술사’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총 966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이후 중복 논문, 메타데이터 오류,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이 낮은 논문을 제외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22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분석 데이터에는 논문 제목, 저자, 발행 연도, 저자키워드, 학술지명, 학문 분야, 초록 등의 메타데이터 항목을 포함하였다.

2.2 분석절차 및 방법

연구 분석은 크게 연구동향 분석, 주제 변화 분석, 주제 구조 분석, 그리고 주제 구조의 서술적 해석의 네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학문 분야별·학술지별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의 게재 연도와 학술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시계열적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구술사 연구의 학문 분야별 분포와 연도별 연구 생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구술사 연구의 핵심 주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자키워드를 활용한 주제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가 각 시기별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특정 주제의 부상과 쇠퇴, 주제 영역의 확장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구술사 연구의 주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자키워드 간 동시출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군집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구술사 연구 내에서 반복적으로 결합 되는 주제 간 관계 구조와 잠재적인 주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넷째, 동시출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 군집의 개념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각 군집에 포함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 텍스트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제목과 초록을 결합한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iwi(kiwipiepy)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절 및 품사 태깅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명사 계열 품사(NNG, NNP, NNB 등)를 중심으로 분석 단위를 구성하였다. 이후 군집별 텍스트 코퍼스를 구축한 후 TF-IDF 분석을 적용하여 전체 코퍼스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보다는 특정 군집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갖는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 키워드 수준에서 도출된 주제 구조를 논문 제목과 초록에 나타난 연구 서술의 언어적 특성과 연결하여 군집 간 주제적 차별성과 의미 구조를 비교·해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Python 기반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텍스트 전처리 및 통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주제 네트워크의 시각화와 군집 분석을 위해 VOSviewer²⁾를 활용하였다. 단일 분석 기법에 의존하기보다 복수의 분석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구술사 연구의 양적 동향과 주제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술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정규 학술논문이 2002년부터 수록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는 이를 분석의 출발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2) VOSviewer는 라이덴대학교 CWTS에서 개발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인용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에 활용되는 도구이다.

3. 연구 결과

3.1 학술지별 논문 게재 분포와 구조

2002~2025년 9월까지 구술사와 관련된 연구 대상 논문 922편이 수록된 학술지는 365종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2002년에 6편의 논문 게재를 시작으로 연평균 약 3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논문 게재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구술사 관련 논문 수의 연도별 추이

분석 결과, 전체 365종의 학술지 가운데 구술사 관련 논문을 1편만 수록한 학술지는 221종(60.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편을 수록한 학술지는 65종(17.8%)으로 나타났다. 논문 수 기준으로 1~5편 이하의 논문을 수록한 학술지는 전체의 약 94%를 차지하여, 구술사 연구가 다수의 학술지에 분산되어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7편 이상을 수록한 학술지는 전체의 5.1%에 불과하여, 소수의 학술지에 구술사 연구 논문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논문을 10편 이상 수록한 학술지는 전체의 3.5%에 해당하며, 이들 학술지에서 생산된 논문은 전체 논문 생산량의 32.5%를 차지한다. 특히 『구술사연구』는 총 100편의 논문을 수록하여, 전체 논문 생산량의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술지별 논문 수와 전체 논문 대비 비중(10편 이상 게재 학술지)

학술지명	논문게재 수	비율	학술지명	논문게재 수	비율
구술사연구	100	10.6%	여성과 역사	14	1.5%
한국체육사학회지	42	4.6%	스포츠인류학연구	14	1.5%
기록학연구	21	2.3%	한국체육학회지	13	1.4%
역사문화연구	17	1.8%	지방사와 지방문화	11	1.2%
역사비평	17	1.8%	무용역사기록학	10	1.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	1.7%	구비문학연구	10	1.1%
사회와 역사	15	1.6%	총	300	32.5%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이재영,

정연경, 2018). 해당 연구에서는 4편 이하의 논문을 수록한 학술지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5편 이상을 수록한 학술지가 상위 5%에 해당하며, 『구술사연구』가 69편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19%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구술사 연구는 다양한 학술지를 통해 분산적으로 발표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구술사연구』는 창간 이후 구술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해 온 핵심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대비 『구술사연구』의 논문 비중이 10.6%로 다소 감소한 점은, 구술사 연구가 특정 학술지에 집중되기보다 연구 주제와 접근 방법의 확장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와 학술지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2 구술사 관련 주요 학문분야 연구동향

구술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 분야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술사 관련 논문이 게재된 KCI 등재 학술지의 연구분야 분류³⁾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표 2>는 구술사 연구가 나타난 학문 분야 가운데 상위 20개 분야를 제시한 것이다.

<표 2> 구술사 관련 학문분야 및 관련 학술지 수

학문 분야							
1	역사학(134)	6	기타예술체육(47)	11	기록관리/보존(19)	16	교육학(15)
2	기타역사학(105)	7	사회학(29)	12	사회과학일반(18)	17	여성사(역사학)(14)
3	기타인문학(81)	8	문헌정보학(28)	13	무용(17)	18	역사교육(13)
4	학제간연구(54)	9	기타체육(23)	14	체육(17)	19	정치외교학(9)
5	한국어외문학(53)	10	여성학(21)	15	신문방송학(15)	20	기타사회과학(8)

분석 결과, 구술사 연구는 역사학(기타 역사학 포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기타 인문학, 학제간 연구, 한국어와 문학, 예술·체육 분야, 여성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일반, 문헌정보학 및 기록관리 분야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구술사가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인문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예술체육 분야까지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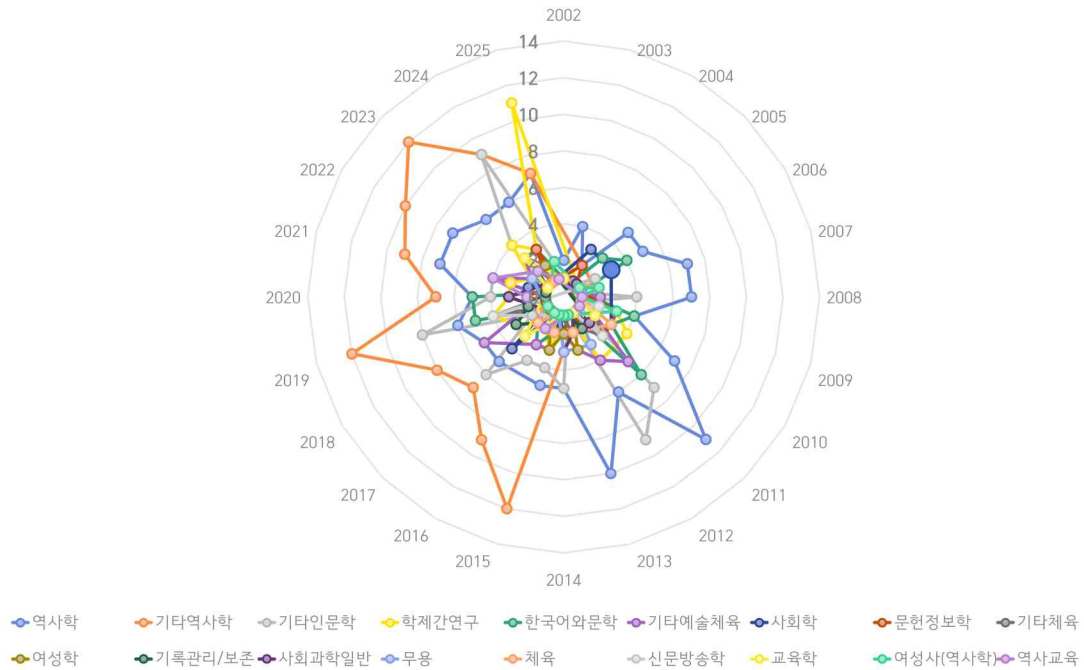
학문 분야별 논문 생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구술사 연구의 학문적 확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학 및 기타 인문학, 한국어와 문학 분야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핵심 영역으로, 『역사비평』, 『역사문화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한국학연구』, 『통일인문학』, 『구비문학연구』,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등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구술사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기타 역사학 분야의 경우 2015년 이후 연구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창간된 『구술사연구』를 중심으로 구술사 관련 논문이 꾸준히 발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2007년 이후 『한국체육사학회지』, 『스포츠인류학연구』, 『무용역사기록학』, 『한국체육학회지』 등을 중심으로 예술인과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구술생애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성학 분야에서는 『한국여성학』, 『여성학논집』, 『여성과 역사』 등이, 사회학 분야에서는 『사회와 역사』 등이 대표적인 학술지로 나타났으나, 해당 분야의 연구 생산은 특정 시기에 집중된 이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양상을 보인다. 문헌정보학 및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2004년 이후 소수의 논문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 KCI 등재학술지에 적용된 한국연구재단 학술표준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류 단위는 중분류를 중심으로 일부 소분류 단위를 포함한다.

『문화와 융합』, 『동북아문화연구』 등 학제간 연구 성격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구술사 연구의 발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학문분야별 시계열적 분포도

한편 연구 수행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독 연구는 750편(81.3%)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공동 2인 연구는 138편(14.9%), 3인 이상 공동연구는 35편(3.8%)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도별 증가 추세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구술사 연구가 역사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사회과학, 예술체육, 학제간 연구로 확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 방식에서는 여전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관찰되는 단독 연구 중심의 연구 관행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협업 연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독 연구가 핵심적인 연구 수행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Larivière et a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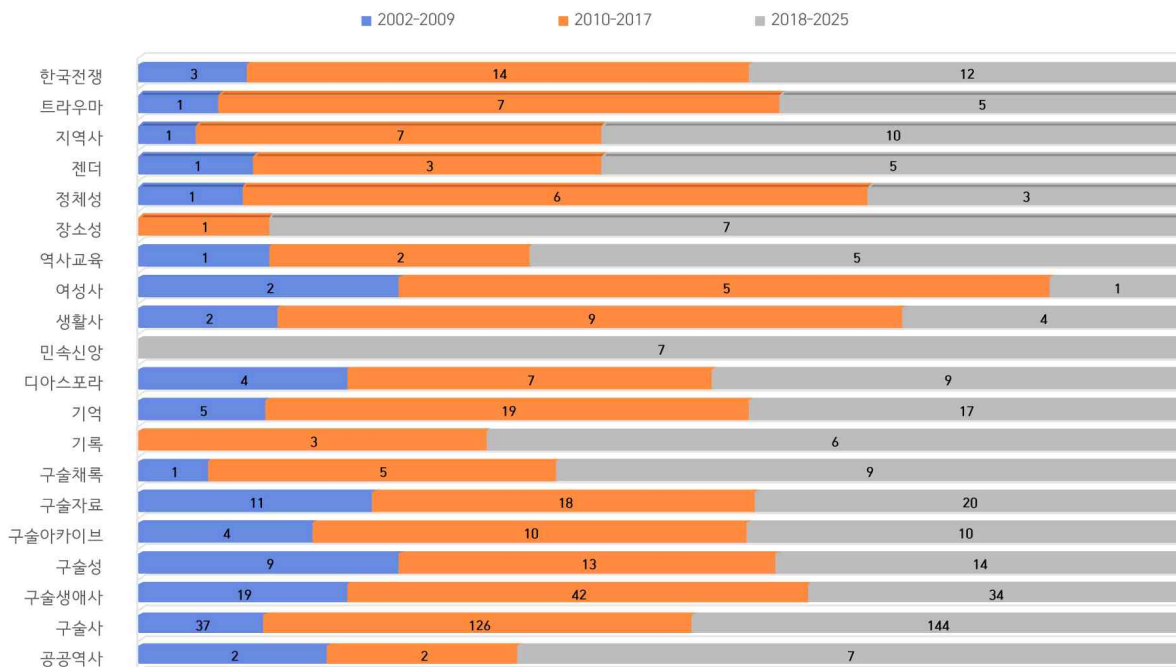
4. 구술사 학문 분야의 주제 영역 분석

4.1 연구주제의 시기별 동향 분석

연구 주제의 시기별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922편의 논문에 대해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전체 논문에서 추출된 저자키워드는 총 3,794개 용어로 나타났으며, 전처리 과정을 거쳐 출현 빈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구술사’(307건), ‘구술생애사’(54건), ‘기억’(39건)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1회만 출현한 키워드는 3,385개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하여, 연구 주제

가 매우 분산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롱테일(long tail) 분포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주제의 다양성과 연구 관심의 분화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주제의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체 분석 기간을 2002~2009년, 2010~2017년, 2018~2025년의 8년 단위 3개 시기로 구분하고,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20개 저자키워드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 상대적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시기에서 키워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100% 누적 가로막대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3단계 시기 구분에 따른 상위 20 저자키워드의 상대적 비중 변화(누적 백분율)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단계(2002-2009년)에서는 ‘구술사’, ‘구술생애사’, ‘구술자료’, ‘구술채록’ 등 구술사 연구의 방법론적 기반과 자료 생산에 관련된 키워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구술사’와 ‘구술생애사’는 이 시기 연구 주제 구성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구술사가 학문적 연구 방법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기존 역사 서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과 구술성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2단계(2010-2017년)에 들어서면서는 ‘한국전쟁’, ‘기억’, ‘트라우마’, ‘정체성’, ‘젠더’, ‘생활사’ 등의 키워드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는 구술사 연구가 단순한 경험 기록이나 자료 구축을 넘어, 기억 연구 및 문화사적·사회사적 해석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억’과 ‘트라우마’의 증가는 개인의 경험 서사를 통해 집단 기억과 사회적 상처를 해석하려는 연구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하며, 이 시기를 구술사 연구의 주제적 다양성과 해석적 깊이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3단계(2018-2025년)는 ‘공공역사’, ‘장소성’, ‘역사교육’, ‘구술아카이브’, ‘기록’과 같은 키워드의 상대적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구술사 연구가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넘어, 구술 기록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공공적 활용과 확산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구술성 및 기억 연구의 확장을 배경으로 전통적 전승과 공동체 기억을 다루는 민속신앙과 같은 주제가 등장한다. 특히 ‘구술아카이브’와 ‘공공역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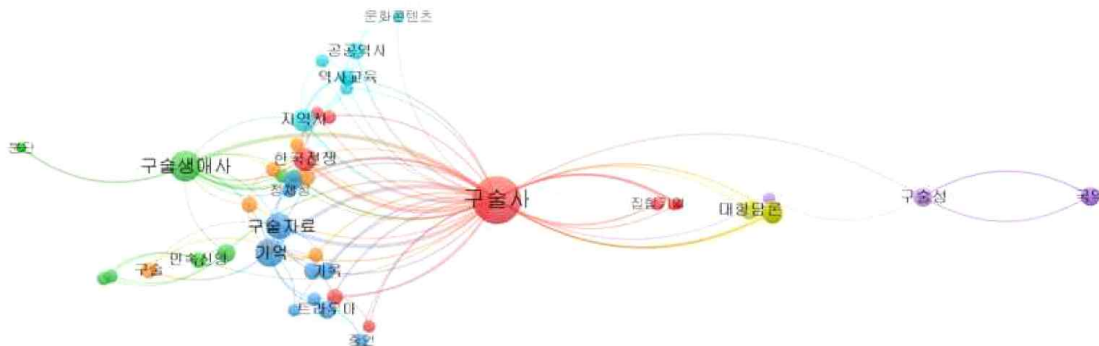
증가는 구술 기록의 축적을 넘어, 구술기록물의 공개·교육·사회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기별 주제 변화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 구술사 연구가 방법론 정립과 자료 생산을 중심으로 한 초기 단계, 기억과 사회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 주제적·이론적 확장 단계, 그리고 구술 기록의 공공성과 활용을 강조하는 실천적 전환 단계로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구술사가 단순한 연구 방법을 넘어, 기억의 생산과 해석, 그리고 사회적 공유를 포괄하는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2 동시출현분석을 통한 주제 영역의 구조화

한국 구술사 연구의 주제 영역이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저자 키워드 간 동시출현 관계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시출현 네트워크는 63개의 키워드와 170개의 연결 관계로 구성되었으며, 총 동시출현 강도(total link strength)는 519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핵심 키워드 조합이 다수의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결합되며, 구술사 연구 내에서 강한 주제적 결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군집화 결과, 구술사 연구의 주제 구조는 총 7개의 주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군집은 <그림 4>와 같이 서로 다른 색상으로 시각화되었다. 각 군집은 구술사 연구가 다루어 온 주요 연구 영역을 반영하는 동시에, 연구자들이 설정한 주제적 지향과 관심의 결합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4> VOSviewer를 활용한 구술사 연구 7개 주제군집 네트워크

VOSviewer 시각화에서 노드의 크기는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형성한 동시출현 관계의 강도를 합산한 Total Link Strength(TLS)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TLS 값이 큰 키워드는 다수의 개념과 반복적이고 강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키워드가 군집 내부 또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주제적 중심성 및 연결점(hub)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출현 빈도는 높으나 TLS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키워드는 연구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개념이지만, 특정 주제 군집과의 결속력은 제한적인 개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7개 주제 군집의 주제적 특성을 요약한 대표 키워드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군집별 대표 키워드는 네트워크 시각화에서 군집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다수의 키워드와 연결된 개념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군집의 주제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군집별 논문 수의 차이는 저자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가 반영하는 연구 주제의 축적 정도와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논문 수가 많은 군집은 공통된 키워드 조합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구술사 연구의

주요 연구 축을 형성해 온 영역을 의미한다. 반면, 논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집은 특정 시기·사건·방법론에 집중되거나 키워드 사용이 분산된 주제로, 연구량은 적지만 주제적 특수성과 개념적 응집도가 높은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7개 주제군집별 대표 키워드

군집	키워드(Items)	논문 수 ⁴⁾
1	구술사, 국제결혼, 민간인학살, 박물관, 빨치산, 아카이브, 장소성, 집합기억, 한국전쟁, 1970년대 ⁵⁾ , Olympics	286
2	공동체 기억, 구술생애사, 구술채록, 민속신앙, 상징인류학, 분단, 생애담, 생존전략, 여성사, 유도	89
3	구술아카이브, 구술자료, 기록, 기록관리, 기억, 정체성, 증언, 치유, 침묵, 트라우마	83
4	가역적 서사, 기억의 구조화, 기억의 재현, 대항담론, 동신당, 마을사, 상징, 성소공간, 신화 만들기	5
5	구비문학, 구술성, 국역, 근대사, 김소월, 노래, 문학사, 보편성, 한시	15
6	공공역사, 구술사교육, 문화콘텐츠, 소통, 시민교육, 역사교육, 지역사회	37
7	구술, 디아스포라, 생활사, 여성, 이주, 젠더, 코리안 디아스포라	59

4.3 TF-IDF 분석을 통한 주제군집의 의미 해석

저자키워드 동시출현 분석을 통해 도출된 7개 주제 군집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각 군집에 포함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 텍스트를 대상으로 TF-IDF 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군집별 TF-IDF 상위 핵심 용어는 해당 군집에 속한 논문들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개념들을 식별하는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시출현 분석으로 형성된 주제 구조가 실제 연구 텍스트에서 어떠한 개념적 강조와 해석 방향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완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표 4>는 저자키워드 동시출현 분석을 통해 도출된 7개 주제 군집(<표 3> 참조)을 대상으로, 각 군집의 핵심 주제와 대표 키워드, 그리고 TF-IDF 분석을 통해 확인된 군집별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구술사 연구 영역의 7개 주제 군집에 대한 TF-IDF 기반 개념적 해석

군집	주제	대표 키워드	TF-IDF 분석
1	한국 근·현대사 사건에 대한 기억과 증언의 역사화	한국전쟁, 집합기억, 장소성, 민간인학살	전쟁 경험의 서술, 개인 기억의 역사적 재구성(비공식 기억의 복원), 진상규명
2	분단 경험과 개인의 구술생애사, 역사에서 소외된 삶의 재구성	구술생애사, 분단, 여성, 문화, 노동, 산업, 근대	분단의 경험과 개인의 삶, 노동자들이 경험한 생애사적 사건, 여성과 문화예술인 삶의 재현
3	트라우마 기억의 재구성 and 구술 자료의 기록화	트라우마, 기억, 증언, 기록, 구술자료, 구술아카이브	고통 경험의 언어화/재서술, 기억의 재구성 메커니즘, 증언의 기록 전환 과정
4	공동체 기억과 마을서사의 구술적 전승	지역, 마을, 공동체, 생활사, 아카이빙, 전승	집단기억의 공유·재현, 지역 정체성의 서사화, 생활세계의 기록화, 지역 아카이빙 실천
5	구술의 매체적 전환과 재현을 다루는 방법론적 연구	구비문학, 구술성, 문자/텍스트, 국역, 재현	구술로 전승되는 서사가 문자 기록과 결합하거나 전환되는 과정, 의미 변형과 해석
6	공공역사로서 구술사 활용과 교육적 확장	공공역사, 시민교육, 지역사회	구술사가 공공역사의 실천 수단으로 활용, 교육과 지역사회 영역으로 확장
7	이주와 디아스포라 경험의 구술적 기록과 문화적 기억	디아스포라, 이주, 코리안 디아스포라(사할린/연해주/제일/조선족 등)	국경이동과 정착의 경험,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기억 형성과정

- 4) 전체 922편 중 일부 논문이 군집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저자키워드 동시출현 분석의 특성상 네트워크 연결성이 낮은 키워드가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5) 1970년대와 관련된 용어는 새마을 지도자, 한국농촌, 영화 산업, 전자산업, 여성노동자, 민주노조, 산업노동자 등이다.

클러스터 1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기억과 증언을 역사화하는 연구들로 구성된 군집이다. 이 군집의 연구들은 한국전쟁을 비롯한 식민지 경험, 국가 폭력, 사회적 격변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과 기억을 통해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구술은 단순한 개인 서사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사건과 구조적 폭력의 경험을 증언하고 이를 역사적 의미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전쟁과 폭력 경험의 구체적 재현, 기존 기록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비공식적 기억의 복원을 통해, 문서 중심의 공식 기록이 포착하지 못한 역사적 공백을 보완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술사가 개인의 기억을 사적 차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사회적·집단적 기억으로 확장하여 역사 서술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클러스터 2는 개인의 삶을 대상으로 한 구술생애사 연구로 구성된 군집이다. 이 군집의 연구들은 분단의 경험과 국가 주도의 재건 과정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하고, 개인의 삶의 궤적을 하나의 서사적 단위로 재구성하는 공동된 방법론적 특징을 보인다. 여성의 생애를 다룬 연구뿐 아니라, 분단 이후 산업화와 국가 재건 과정에서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삶을 형성해 온 노동자, 예술·체육 등 문화 영역 종사자의 생애를 다룬 연구들이 병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애의 전환점, 경험의 누적 과정, 개인적 활동이 지닌 의미에 초점을 두며, 구술을 통해 개인의 삶이 사회 구조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구술은 개인사 기록을 넘어 특정 사회 영역의 형성과 변화를 드러내는 분석 틀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러스터 3은 트라우마와 기억의 재구성을 중심 주제로, 기억이 구술을 통해 재서술되고 구술자료로 기록화되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로 구성된 군집이다. 이 군집의 연구들은 기억의 사실적 내용 자체보다는, 트라우마 경험이 어떻게 언어화되고 서사로 구성되며, 나아가 기록물로 전환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히 고통 경험의 증언이 갖는 재현 방식과, 개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던 과거가 구술을 매개로 대안적인 역사 서술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구술기록물을 데이터화하여 보존·관리하는 구술 아카이브와 관련된 연구도 포함되어, 트라우마 기억의 기록화와 보존을 둘러싼 실천적 논의까지 포괄하는 특징을 지닌다.

클러스터 4는 공동체 기억과 마을서사의 구술적 전승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군집이다. 이 군집의 연구들은 마을 단위에서 형성된 집단 기억과 일상적 경험이 구술을 통해 기록되고 전승되는 양상에 주목하며, 구술을 공동체 정체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매개로 분석한다. 특히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과 경험에 대한 기억이 세대 간 구술을 통해 축적·재현되는 과정은, 국가나 공식 기록 중심의 역사 서술에 대응하는 대항기억(counter-memory)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술사가 개인 기억의 수집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차원의 기억을 조직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사회 내부의 역사 인식과 기억 실천을 드러내는 중요한 분석 틀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클러스터 5는 구술의 매체적 전환과 재현을 다루는 연구로서, 구술 전통을 문학적·서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텍스트로 전환하는 연구 흐름을 반영한다. 구비문학, 번역 및 국역, 서사 형식의 재구성 등이 주요 주제로 나타난다. 구술성을 강화한 한시, 시, 문학 등에서 나타난 구술성 있는 한국 문학의 문학적 특성과 흐름을 보여준다. 구비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구술성이 문학과 역사 연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탐구한 연구들로 구성된다. 이 군집의 연구들은 말로 전해진 이야기가 문자 기록이나 매체를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의미화되는가에 주목한다. 구술을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인식과 서사를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조건으로 이해한다. 구술사 연구가 경험 서술을 넘어, 구술의 형식과 매체성 자체를 성찰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러스터 6은 구술사가 공공역사의 실천 수단으로 활용되며, 시민교육과 지역사회 영역으로 확장되는 연구 경향을 보여주는 군집이다. 이 군집의 연구들은 구술 기록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전시·교육 프로그램·지역사 서사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다룬다. 특히 지역과 주민, 교육이라는 키워드의 결합은 구술사가 공동체 기억을 형성하고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매개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술사가 학술 연구의 범주를 넘어, 공공적 소통과 시민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공공역사 실천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클러스터 7은 이주와 디아스포라라는 조건 속에서 형성된 삶의 경험을 구술을 통해 기록하고 해석하는 연구들로 구성된다. 국경 이동, 정착 과정,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이동의 경험이 어떻게 기억으로 조직되고 문화적 서사로 전환되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디아스포라 공간에서의 일상과 노동, 문화적 적응 과정은 구술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헌 중심의 역사 서술이 포착하지 못한 이동의 경험을 복원하며, 이주 집단의 기억과 정체성을 역사적 자료로 위치시킨다. 이주·디아스포라 경험을 문화적 기억의 차원에서 조명하는 구술사 연구 경향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7개 군집 클러스터는 구술사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개인의 생애 경험을 재구성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기억과 트라우마의 기록화, 지역 공동체의 집단기억, 구술 전통의 문학적·매체적 성찰, 공공역사와 시민교육으로의 확장, 그리고 이주·디아스포라 경험의 문화적 기억화로 점진적으로 분화·확장되어 온 연구 지형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구술사 연구가 역사적 사건의 증언을 넘어, 삶의 서사, 기억의 형식, 매체성과 실천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 영역으로 발전해 왔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5년까지 KCI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구술사 관련 논문 922편을 대상으로, 학문 분야 및 학술지 분포 분석, 저자키워드의 시기별 변화 분석,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과 TF-IDF 분석을 결합한 텍스트마이닝 기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국내 구술사 연구동향 분석이 연구 생산의 양적 추이나 개별 주제의 서술적 정리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대규모 학술 텍스트를 기반으로 구술사 연구 주제의 축적과 분화 과정을 주제 군집 단위에서 구조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한국 구술사 연구는 7개의 주제 군집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이는 구술사가 역사적 사건 증언을 중심으로 한 초기 연구 단계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생애 경험과 기억의 재구성, 공동체 기억과 구술 전통, 구술의 매체적·서사적 성찰, 공공역사와 시민교육으로의 확장, 그리고 이주·디아스포라 경험의 문화적 기억화로 점진적으로 확장·분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제 구조는 구술사가 단일한 연구 방법이나 주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기억의 생산과 해석, 기록화와 전승, 공공적 활용을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 군집의 구성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국내 구술사 연구의 주요 특징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국 구술사 연구는 주요 역사적 사건과 전쟁 경험, 생애사, 일상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핵심 주제 군집을 통해 구조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개별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한 분류를 넘어, 대규모 학술 텍스트 분석을 통해 기존 논의를 경험적으로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저자키워드 동시출현 분석을 통해 형성된 주제 구조를 제목과 초록 텍스트의 TF-IDF 분석으로 보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구자가 설정한 개념적 주제와 실제 연구 서술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특성 간의 연결 관계를 함께 해석하였다. 이는 구술사 연구의 축적 경로와 변화 양상을 빈도나 개별 사례 차원이 아니라, 주제 간 관계 구조와 서술 언어의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술사 연구를 대상으로 한 인용분석을 통해 연구 간 영향 관계와 지식 확산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구술사 연구 분석의 범위와 방법론적 지평을 한층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윤택림 (2023). 구술자료 생산 및 활용현황과 구술사의 공공성. *구술사연구*, 14(1), 211-244.
<https://doi.org/10.51855/koha.2023.14.1.6>
- 이재영, 정연경 (2018).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 분석: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25-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025>
-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https://doi.org/10.3743/KOSIM.2009.26.1.163>
- 정혜경 (2015). 구술사: 기록에서 역사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8, 229-262.
- 허영란 (2013). 한국 구술사의 현황과 대안적 역사쓰기. *역사비평*, 102, 312-331.
- Andalas, E. F., Prawiroatmodjo, S., Saktimulya, S. R., & Wulandari, A. (2024). Mapping the field: A bibliometric analysis of oral tradition research in Indonesia. *KEMBARA: Journal Keilmuan Bahasa, Sastra, dan Pengajarannya*, 10(2), 414-428.
<https://doi.org/10.22219/kembara.v10i2.36077>
- Er Türküresin, H., Sarı, İ., & Ödemir, D. (2024). The use of oral history in educational research: A bibliometric analysis. *Türk Akademik Yayınlar Dergisi (TAY Journal)*, 8(1), 149-175.
- Hoopes, J. (1979). *Oral history: An introduction for student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Larivière, V., Gingras, Y., Sugimoto, C. R., & Tsou, A. (2015). Team size matters: Collaboration and scientific impact since 1900.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6(7), 1323-1332.
<https://doi.org/10.1002/asi.23266>
- Moss, W. W. (1988). Oral history: What is it and where did it come from. In D. Stricklin & R. Sharpless (Eds.), *The Past Meets the Present: Essays on oral history* (pp. 3-20).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Smith, G. (2013). A short history of the oral history society, c. 1973-2013. *Wrocław Yearbook of Oral History*, 3, 93-12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ur, Young-Ran (2013). Current state of oral history and alternative history writing in Korea. *Critical Review of History*, 102, 312-331.
- Jung, Hye-Kyung (2015). Oral history: From records to history. *Journal of Korean-Japanese Historical Studies*, 28, 229-262.
- Lee, Jae-Young & Chung, Yeon-Kyoung (2018). Research trends of oral history in Korea: Focusing on domestic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3), 25-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025>
- Lee, Jungyeoun (2009). A study on metadata modeling and standard elements for building oral history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163-184. <https://doi.org/10.3743/KOSIM.2009.26.1.163>
- Yoon, Taek-Lim (2023). Production and use of oral materials and publicness of oral history. *Journal of Oral History Studies*, 14(1), 211-244. <https://doi.org/10.51855/koha.2023.14.1.6>

